

# “안 오르게 없네” 새학기 광주 대학가 고물가 시름

# 방학이지만, 취업준비를 위해 매일 아침 학교 도서관에 가는 조선훈 자연과학대학생 진모(여·25)씨는 잊지 않고 도시락을 챙긴다. 진씨는 개강해도 매일 아침 도시락을 챙길 것이라고 말한다. 친구들과 사먹는 한끼 식사비가 한 달이면 수십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진씨는 “부모님에게 손 내밀기가 죄송하다.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최대한 아낄수 있는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를 이용할 것”이라면서 “고물가에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 전남대 대학원생 이모(여·24)씨도 신학기를 맞아 고민이 깊어졌다. 고물가로 식비에 월세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점심과 저녁을 가장 저렴한 학생식당에서 해결하고, 교통비를 아끼려고 걸어다녀도 한 달 생활비가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이씨는 “국밥 한 그릇에 1만 2000원 정도 한다”면서 “친구들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학식’으로 대체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100만원 밑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고물가에 월세와 식비까지 오른 상황에 일부 대학의 등록금까지 올라 신학기를 맞은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일부 대학이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줄줄이 인상을 결정하면서 고민이 더 늘었다. 치솟

는 주거·식비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큰데 등록금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23일 만난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숨쉬는 게 돈’이라며 연신 한숨만 내쉬었다.

등록금·월세·식비 등 줄인상 치솟는 물가에 대학생들 한숨 도시락 챙기고 걸어다니고 저렴한 학생식당서 끼니 해결 ‘소비 없는 하루’ 보내기 고심

가장 먼저 지난해 급리가 부쩍 오르면서 대학가 신축 빌라의 경우 임대료를 인상했다. 건축에 사용된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자연스레 월세도 올랐다는 것이 대학가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신축의 경우 지난해 36만원이던 조선훈 인근 원룸 월세가 최근 50만원까지 치솟았다.

동구 자산동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A(50)씨는

“신축은 대출금 부담 때문에 올리고 있는 추세”라면서 “구축도 대부분 공과금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월세를 동결하는 경우라도 도시가스사용료가 올라 몇 만원이라도 주거비용이 오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 식비 등의 줄인상으로 학생들은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형편이다.

전남대에 다니는 오모(여·23)씨와 조선훈 대학원생 전모(26)씨 커피를 눈에 띄게 오른 물가에 ‘소비 없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밖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소비로 이어지자 각자 집을 번갈아 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커피는 집에서 타서 마시고 직접 장을 봐서 식사를 해결하며 배달음식을 줄이고 있다.

학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전남대·조선대·호남대·남부대·목포대 등은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동신대 5.4%, 광주대 5%, 광주여대·광주교대 4.9%, 송원대 4.6% 등 일부 학교는 인상했다.

광주대에 다니는 아들을 두고 있는 이승용(56)씨는 “수십년간 유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을 시작으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최악이다. 경제적으로 무엇이든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첫째 아들 등록금도 부담데서 대출을 받았다. 고1 아들도 대학 입학 앞두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광산구에서 운송업을 하는 송동림(53)씨도 최근 대학생인 두 딸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벅잡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송씨는 “큰 딸이 국립대에 다녀 큰 돈은 들어가지 않으나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사립대에 다니는 둘째 등록금까지 감당하다보면 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2.3%)보다 높은 2.5%를 기록,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사람 구하려 소방관이 출입문 파손 수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불난 빌라 주민들 배상 문의에 광주북부소방, 보험금 지급 요청 공제회 “적법 조치...지급 부적격” 화재 발생 집주인 사망에 구상권 청구도 불가능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출입문을 파손했다면 수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23일 광주북부소방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회)의 행정배상책임보험은 광주북부소방 소방관들이 불어난 빌라에서 6가구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면서 부순 것에 대해 지급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보험의 보상범위는 소방관의 과실일 경우인데, 당시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11일 새벽 2시 50분께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진화에 나섰다. 이 빌라 2층에 살던 30대 집주인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빌라에 사는 주민 7명(5명 자력, 2명 구조)이 대피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6가구의 문을 강제로 열었다. 새벽 시간대 잠든 주민이 있을 수 있어 부득이 잠금장치와 현관문을 파손하게 됐다.

사고 이후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물건들의 비용(800만원 상당)을 배상받

을 수 있는지 소방에 문의했다.

소방은 소방기본법(25조) 상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주민들의 막대한 사정을 고려해 공제회의 행정배상책임보험에 지급을 요청했다.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불어난 주택의 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해당 빌라의 세대주들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화재가 발생한 2층 집주인도 사망해 구상권 청구도 불가능한 점도 고려됐다.

행정배상책임보험금 청구 요청이 거부되자 광주북부소방은 소방대원의 배상을 대비해 세무당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비 예산이 총 1000만원 한도여서 예산의 80%에 달하는 비용을 한번에 지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북부소방 관계자는 “강제 개방된 세대에서 소방에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해온 만큼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과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법주차차량 차량의 경우 소방차가 강제로 밀고 갈 수 있는 처분도 이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톡톡 튀는’ 졸업 축하 현수막들 2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에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기아차 광주공장 관련 취업사기 피해 수사

“노조 간부에 8000만원 줬는데 취업 안되고 돈 돌려받지 못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관련 취업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기아차 광주공장 관련 취업사기 건을 수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취업사기 피해자라는 A씨의 제보로 경찰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씨는 2023년 기아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B씨가 1년 안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인사비 등의 명목 등으로 총 3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건넸지만, 취업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실제 기아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며 취업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버스 내리다 오토바이에 치여 부상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여고생이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다.

2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장동의 전남여고 버스정류장에서 30대 A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B(17)양을 충격했다.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B양은 사고 충격으로 버스 측면에 얼굴을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차가 막히는 것을 피해 정차한 버스과 인도(정류장) 사이 차도를 통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점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